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고정하. 야고보 916-212-3747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탈출기 22:20-26	제2독서	데살1서 1:5-10	복음	마태오 22:34-40
--------	------	--------------	------	-------------	----	--------------

◎말씀 <가장 큰 계명>

바리사이들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대표해서 물음을 제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리사이들 가운데 출중하고 율법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대에 율법 학자들이 오래도록 사색하고 논의하던 물음을 제기합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 22,36) 당대에는 준수 규정 248조항과 금지 규정 365조항을 합하여 모두 613조항을 율법 규정으로 준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는 물음이라, 전체 율법 규정에 통달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누구도 만족을 걸 수 없도록 열심히 한다는 신앙인들이 날마다 여러 차례 바치던 쉼마 기도문에 담긴 신명기 6,5의 말씀을 꼽으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도 이와 같으면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째’는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라 나열된 순서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괜찮아, 항상 모든 일을 잘 할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정말 수고 많았어, 라는 자세에서 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정도면 괜찮지, 누가 뭐라해도 흔들리지 않을거야’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서 나오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필요는 없어,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며 지나친 책임감을 줄이는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반대자들의 무리와 마주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그분에게 올라가미를 씌우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속마음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불안해 떨지도 않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굳건하십니다. 자존감이 확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깊이 있게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31일(화)	연중 제30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1,745.00 \$ 1,104.00
11월1일(수)	모든 성인 대축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95.00 \$ 100.00
11월2일(목)	위령의 날	오후7시30분	성 물 방 교구2차헌금	\$ 69.00 \$ 321.00
11월3일(금)	연중 제30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사제관건축 기타수입	\$ 0.00 \$ 150.00
11월4일(토)	성 가롤로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오전10시30분 (묘지미사)	합 계	\$ 3,584.00
11월5일(일)	연중 제3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3명 성인: 159명
교무금봉헌자	최응철. 장영수(9-12월) 김은수. 김평옥(10-11월) 정린(7-11월) 이윤상. 서희석(9-10월) 원영일(7-8월) 한승운(9월) 김재홍. 황호민. 안선미(10월) 남필레(11월)			

◎신앙생활(가정의 새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햄버거

더운 여름날, 한 청년이 배가 고파 햄버거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 야외 벤치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며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으리으리하고 번쩍이는 자동차 한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차에서는 비서인 듯한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서 차 안으로 건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청년은 부러워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가 사다 주는 햄버거를 저런 멋진 차 안에서 편히 앉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더운 날 땀을 뺀뺀 흘리면서 청송맛게 공원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먹고 있는 내 신세가 정말 처량하군....’

그런데 같은 시간,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도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먹으러 여기저기 돌아 다닐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렇게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기뻐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감사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에게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과 비교 의식입니다.

오늘하루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기 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황애다/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안나 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 김미숙. 모니카/황순이. 마리아/최이주. 베아타 신용경. 그레고리오/엄모니카/이규형. 제노비아 배미성. 오티리아/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 김영자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생	유우림.로사, 강재준의 영육간 건강	류재순. 마리아
연			생		

간
장
종
지

◎살아계신 분◎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알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당신이 함께 살아 있는 한 몸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해 눈물 흘리는 분인줄 잊고 있었습니다, 내주님.
(마종기 노렌조. 시인, 의사/최창원 니콜라오. 화가)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메리서부동산·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7803 Laguna Boulevard suite 200, Elk Grove CA95758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916)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David's TV & Computer Repair 6743 Fair Oaks Blvd. Carmichael,CA 95608 M-F; 9am-5:30pm Sat:10am-1pm 데이빗 김 (916)331-4515 www.davidtvrepair.com</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 장애사회보상. 변호사;이진아(막달레나) danieelaw@gmail.com (916) 922-0107</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